



청송심씨 심벌마크

青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전화 : (02) 2267-7857
(02) 2267-9339
F A X : (02) 2269-7755
인쇄 : SNS인쇄
02-2277-0245

격월간 제147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1년 1월 31일(일)



소의 해, 심문의 인재들은 이런 꿈을 꾸니다

소의 해,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연초면 누구나 새로운 꿈을 꾸니다. 심문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은 개인의 발전만이 아니라 심문의 앞날에도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조돈목과 일가화합이라는 심문의 DNA가

그들에게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미래를, 전통보다 현실을, 핏줄보다 능력을 숭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송 심문이 숭상해온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진행형 덕목입니

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심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청장년들이 그런 가치를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그런 일을 하는 곳이 핏줄로 뭉친 대종회의 현대적 역할 일 것입니다.



심한철 경찰청 대테러과장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의 밑알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서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듯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백신개발 등으로 코로나 종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방역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관으로서 올해도 국민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도록 작은 밑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소홀했던 가정생활과 사회활동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런 꿈들을 유시유종(有始有終)의 변함없는 자세로 일가분들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디그롬 선수(뉴욕 메츠)처럼 160km 광속구를 던지고 싶다”

올해는 제가 어떤 선수가 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좋은 몸상태를 유지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저의 목표인 세계 최고의 메이저리거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2004년생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처럼 그냥 좋은 선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두 인정해주는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심준석 야구선수(덕수고)



심효준 ㈜에스피시스템스 대표

“격랑과 격변의 시대, 혁신과 기술개발로 경쟁력 확보”

우리는 코로나 위기로 새로운 표준인 이른바 ‘뉴노멀’의 격랑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미중간 신냉전으로 각국의 국가주의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는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하며 내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체력을 길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겠습니다. 경제와 사회적으로는 기술의 선행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것이 무한 경쟁 시대의 유일한 생존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에서 두머니물농원을 운영하면서 꿀농사도 조금 짓고 있습니다.대중회 일은 잘 몰랐으나 2019년 페이스북을 통해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알게 됐고, 그해 12월 서울에서 여러 일가를 만나면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일가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니 말입니다. 청수회 제주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도 맡았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주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심국향 제주 두머니물농원 대표



심하진 제1기 청심장학생

“올해 10월에는 영국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합니다”

영국에서의 마지막 학년인 3학년을 보내며 불합격 통지도 슬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대학원에 합격했고, 영국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 취업해 오는 10월에 출근을 합니다.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었지만 2019년 제1기 청심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는 자부심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 저의 가능성을 믿어 주신 심문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국가와 심문이 자랑할 수 있는 인재로 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와 개발, 모두 최고인 치과교정전문의를 목표로”

2020년에 기뻐던 일은 청심장학회 장학생이 된 것과 미국 Case Western Reserve 치과대학을 6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세인트루이스대학 치과부속병원에서 교정전문의 과정을 무사히 마친 것입니다. 저는 모교인 Case 대학이 있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클리닉에서 일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나이의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정방법을 개발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하고, 교정 기간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와 개발 분야 모두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심헌 제2기 청심장학생



신축년 신년사

沈영감 심민섭



“코로나에도 지지 않는 심문의 단결을 기대합니다”



심대평 대종회 회장

국내외 30만 일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인간사(人間史)에서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게 되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청송 심문(沈門)은 <2019년 한마음 대회>를 통해 다진 '우애(友愛)와 배려(配慮)'의 소중한 전통을 나누며, 일가(一家)끼리 의지하고 합심하던 터라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심문(沈門) 달력 제작 및 배부', '제2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인터넷즉보 증보', '시대정신을 담은 증보 발행', '13상신 송조사업 착수', '청송 시조님 묘소 진입 수로석축공사 청송군 사업 확정'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성원해 주신 일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일가 여러분!

올 신축년(辛丑年)에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과 이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생활 전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지만, 우리 심문은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슬기롭게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청송 심문의 역사에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선조님들의 지혜와 해안도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종회가 중심에 서서 선조님 송조사업 수행, 인재양성을 위한 청심장학회 운영 및 일가간의 화합과 심문 발전을 위한 종사 등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염원처럼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안정된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선조님 향사봉행도 정상적으로 거행하고, 40·50대 중심의 전국모임인 청수회, 청심회 등 청송심문의 친목모임도 더욱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국내외 30만 일가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내에 두루두루 축복과 행운이 깃들길 소망합니다.

2021. 1. 31.

청송심씨대종회 회장 심대평

고국의 심문 소식에 자부심이 솟아납니다



심재길 전 미국 뉴저지한인회장

미국에서 큰 레스토랑을 두 개나 갖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돈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근면성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이 저의 성공비결입니다.

1970년 2월경 전남 곡성에서 뉴욕 맨해튼 월드 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20개월간 요리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연수를 마치고 이곳에서 식당을 시작했고, 1980년대에 뉴저지로 옮기면서 식당 경영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잘 해 주자' 것이었습니다. 제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20년, 30년 함께 고락을 해온 분들입니다.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그 이유를 물어봤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알아보고 안 되면 나하고 평생 같이 일하자고 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지금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명문대를 나온 뒤 각각 알파인과 파라투스 기구 레스토랑을 맡아 내 경영방식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일군 사람으로도 주위에서 부러워합니다.

대외적으로는 1980년대 후반에 뉴저지한인회 15대와 16대 이사장, 그리고 17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회장으로서 2가지 역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릿거스대 한글학과 지원 사업

등 한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향상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인회와 경제인협회 활동과는 별도로 2세 자녀와 가족들을 위한 뉴저지테니스협회를 창립하고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1세대 뉴저지한인회가 한인사회 권익 향상을 위해 2세 인재를 후원토록 한 것입니다. 이제는 뉴저지에서도 한인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인들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참석은 못 했지만, 대종회가 2019년 10월 개최한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이후 대종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은 일가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고국의 소식을 접하면서 자부심이 솟아납니다. 특히 인재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청심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심대평 회장님의 큰 안목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일가분들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송조돈목의 정신은 굳건합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뚜벅 걸으며 심문의 발전위해 노력할 터



심정구 인수부윤공종회 회장

“양혜공 재실 완공...인수부윤공 재실도 추진”

우리 문중도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선조님의 춘·추향제를 종회 임원과 소수의 지역 일가만으로 간소하게 봉행할 수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6세조이신 양혜공 묘소는 묘막이 협소하고 노후해서 시제봉향 때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난해 10월 목조 5칸의 고전양식으로 재실을 완공했습니다. 올 추향제 때 준공식을 열 예정입니다. 2019년에 신축한 7세조 망세정공 재실과 묘역의 잡초제거, 주변 나뭇가지 치기, 석물 교정, 경관관리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것은 5세조이신 인수부윤공의 재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장기 계획을 세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거여동의 청송빌딩은 예식장에서 체육시설과 점포로 용도를 바꿔 잘 운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심기일전해서 더욱 발전하는 종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규 광주 청광회 회장

“심문의 친목 강화, 위상 제고 위해 정진할 터”

대중회는 2019년 <청송심씨 한마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 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2020년에도 장학재단 발족, 심문 달력제작, 풍성한 종보 등으로 변화를 견인하며 청송심씨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대평 회장님 이하 대중회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우리 청광회도 청송심문 간의 친목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만나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늘 가슴 한켠에 잔잔한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일가들이 웃으면서 반갑게 만날 날을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이 더욱더 번창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심종식 곡성공종회 회장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일가분과의 화합에 노력”

돌아켜보면 지난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고난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평소 당연하게 생각했던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코로나가 물고 온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1년 신축년은 근면, 충직, 풍요를 상징하는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곡성종회에서 지난 <청송심씨 한마음대회>에서 느낀 감동과 자긍심을 기억하며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일가분들과의 화합과 송조돈목의 정신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일가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풍요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심한섭 현령공 경남총회 회장

“청수회총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지난 한 해 경남총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일가님과 지·종파를 초월한 경남총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송심씨 청장년의 전국 모임인 <청수회> 총회를 ‘선비의 고장 경남 산청’에서 개최한 것은 우리 심문의 희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경남총회 어르신들이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수회 총회를 통해 2019년 <한마음대회> 이후 다시 한번 우리 청송심씨의 희망과 미래, 송조돈목 정신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청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작금의 재난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 일가 모두가 자유로운 생활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30만 청송심문 일가님들 새해 바라시던 소원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심익섭 오산사복시정공종회 회장

“심문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조속히 추진되길”

최근 코로나 등으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대평 회장님 이하 집행부의 활약으로 우리 대중회와 지역총회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해 5000여 명이 운집한 한마음대회를 비롯해,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심문달력 발행, 선진화된 종보발간, 중장년 청수회 발족, 13상신 송조 및 관리미흡 묘역정화사업 등 다른 문중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고심 중에 있는 <심문역사문화기념관건립>을 조속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념관은 훌륭한 선조님들의 유품을 한곳에 모아 후손들에게 심문으로서의 자긍심과 뿌리를 보여줌으로써 송조돈목사상을 고취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합니다.

올해도 호랑이의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직하고 성실한 황소 걸음(虎視牛步)의 자세로, 심문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동행합시다.

자랑스러운 일가를 찾아서(3) / 심상균 부산경총회장(SP systems 회장)

“기업 경영, 사회 기여, 대종회 봉사…모두가 소중하다”

심상균 회장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부산중회장으로 일했고 현재는 명예회장이자다. 심의락 대종회장 때부터 부회장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고문. 심대평 회장 취임 이후에는 대종회 발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9년 청송심씨 한마음대회 때는 1000만 원을, 청송심씨장학회에는 3000만 원을 쾌척했다. 종종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SP systems라는 최첨단 중견기업을 창업한 기업인으로서, 2019년 2월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올랐다. 그를 만나봤다.

SP systems는 어떤 곳?

1988년에 설립했고 산업용 갠트리 로봇의 생산과 공장자동화 물류시스템을 제작해 공급하는 기업이다. 특히 24시간 가동하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고객 니즈에 맞춰 설계부터 제작, 설치, 시운전을 Turn-Key 방식으로 수주해 최단 시일 내에 최적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회사명은 Smart-Progression, Smart-Performance, Smart-Profession의 이니셜을 따서 SP 시스템으로 지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Smart-Factory 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회사 매출액의 절반 이상은 해외 수출에서 나온다. 현재의 기업 가치는 1억 달러 이상이며, 2030년에 10억 달러 가치의 유니콘기업을 만드는 게 목표다. 공장은 경남 양산시 어곡공단로 123에 있다.

- SP시스템을 창업한 경위는.

“일찍부터 40세가 되면 삼성을 퇴직하고 독립해야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해 공장 가동이 어려울 정도로 노사분규가 많았다. 삼성에서 생산기술을 담당하던 나는 인원 감축을 위한 공장자동화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 후 공장자동화 수요가 많아지면서 생산기술 능력과 삼성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SP시스템을 창업하게 됐다.”

- 앞으로의 산업계 변화 전망과 이에 적응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우리 회사의 Smart-Factory 사업과 부산경총의 AI Academy 사업이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상징한다.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듯 AI에도 익숙해질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매뉴얼이 있다면 혼돈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반 조성을 위해 집단 지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대종회 일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심의락 대종회장께서 부산중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해 부산중회 운영이 짜임새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추진하는 장학회 설립과 일가단합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참여하게 되었다.”

- 앞으로 대종회가 발전하려면.

“일가의 참여가 관건인데 ‘왜 참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명문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종종 재산은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써야 한다. 일반 장학금은 일가들이 십시일반 부담하고, 종종 재산은 국가와 가문을 빛낼 더 큰 인재를 양성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나도 일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참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

심상균 회장은 “지금 세대에서는 가문이 결합하기보다 해체되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그런 어려운 시점에 대종회가 한마음대회 개최, 장학회 설립과 정보 개선 등을 통해 단합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심규선 홍보편집장)



심상균 회장이 걸어온 길

1950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는 기계설계를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MBA학위를 취득했다. 삼성 SDI에 입사해 Plant-Engineer이자 컬러브라운관 공장 건설팀장으로서 세계 최고의 공장을 건설해 컬러브라운관이 대한민국의 전자부품으로는 최초로 세계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건설팀장으로 발탁된 것은 컬러브라운관의 제품, 기술, 시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기존의 관성을 타파하려는 열정, 조직과 고객에 대한 충성심도 있었지만, 사람과 운도 따랐다고 생각한다. 삼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SP시스템을 창업했다. 갠트리 로봇 시장의 세계 1위 기업인 스위스의 Gudel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최초로 가이드랙(Guide Rack)을 국산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부산경총은 어떤 단체인가.

“1981년 4월 설립됐으며 현재 5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설립 목적은 노사간의 이해 증진과 협조 체제 확립, 기업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사용자를 지원하면서, 부산지역의 경영자 대표 기구로서 양대 노총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하고 있다.”

- 무엇에 중점을 두고 부산경총을 이끌고 있는지.

“우선 노사가 협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산업을 이끌어갈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부산지역은 교육기관도 모자란다. 그래서 부산경총은 AI(인공지능) Academy를 설립해 Digital Transformation 산업을 견인할 AI 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특별기고...미래의 주역인 심문 청년들에게 드리는 글

심문의 DNA는 여러분의 미래를 밝힐 큰 자산입니다

조상에게 지혜를 구하고, 작은 나를 벗어나 세계로 미래로 눈을 돌리길



심보균 UN 거버넌스센터 원장
(전 행정안전부 차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요?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심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심문은 우수한 선조들의 덕으로 많은 분이 성공했고, 그 DNA는 우리의 핏속 깊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조상의 음덕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DNA를 바탕으로 더 높고 진취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조상들이 그랬듯이 후손들이 그 DNA를 이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가치와 존재 기반을 늘 생각하면서 사명감과 목표의식, 책임의식을 가진다면 더 힘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심문 중에도 젊은 청년들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벤치마킹하고 나의 귀감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의 심문은 심대평 대종회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젊은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으로서 심문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단합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행로에서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고, 번개와 천둥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고민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으며 방황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일자리 연기가 더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N포 세대란 말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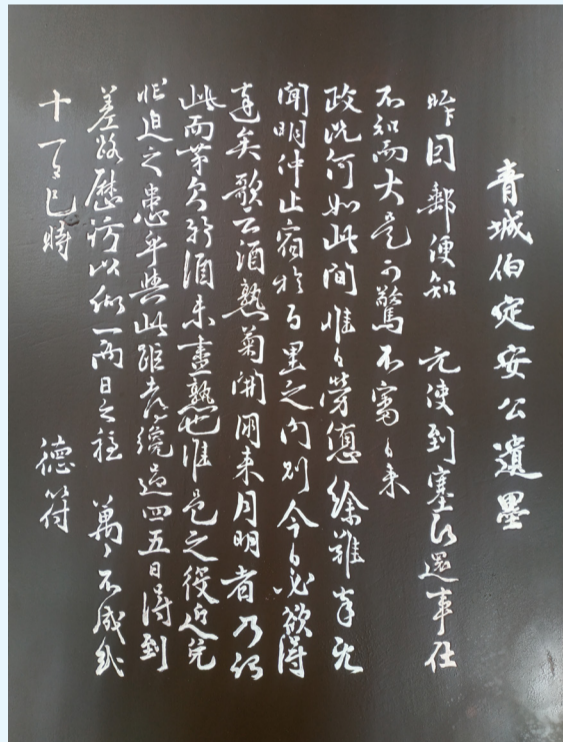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되며, 솔직하고 겸손하게 가르침을 구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심문의 선조들과 현재 인생을 앞서 살아가고 있는 심문 선배들의 지혜로운 삶들을 더듬어 보며 길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지혜를 얻고 길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고 아름다

운 꽃이 피듯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한 알을 보고 “저게/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안공 할아버지 친필유묵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위화도회군 1등 공신, 청성백, 신도궁궐조성도감 판사를 지낸 4세조 정안공(휘 沈德符) 할아버지는 “나는 손발이 이렇도록 평생 일했어도 겨우 이렇게 지내는데, 너희들은 어찌 가만히 앉아서 벼슬을 받는단 말이냐”는 유훈을 남기셨다. 이 가르침이 바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고 무엇이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내가 기여할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와 연관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과 지구의 위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구상에는 극빈층 인구가 7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내를 들여다보아도,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으면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사회 불안과 갈등이 우려되며, 그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상의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고 관심을 가지면

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면, 나도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축복에 대해 자각함으로써 내가 세상에 기여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100세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앞에는 충분한 시간이 놓여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해결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언젠가 풀릴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안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미국에서는 80이 다 되신 분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앞의 일들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눈앞의 일에만 치여 살면 약해집니다.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강해집니다. 그래야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더 뿌리가 깊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강한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만 보지 말고 눈을 더 크게 떠서 더 넓은 세계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봄에 새싹이 돌아 금세 크고, 푸른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듯, 세상은 늘 새롭게 생성하고 발전합니다. 심문의 청년들도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발전하여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문 청소년 여러분은 모두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세상과 심문을 더한층 빛내주시기를 신축년 새해에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심보균 원장이 걸어온 길

1960년 전북 김제에서 5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와 일본 사이타마대 정책과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8년 공직에 입문했다.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실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인사혁신팀장, 정책기획관, 지역발전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유엔 경제사회처 산하 공공제도디지털정부국의 유엔거버넌스센터(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for Governance, UNPOG) 원장. 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국립한국방송통신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17)

충과 효는 뼈대 있는 집안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11세조 벽절공(碧節公·휘 沈淸) 할아버지 (4)



沈厚燮

아동문학가대구문인협회장

보혜야, 너는 ‘개천에서 용 난다.’와 ‘왕대밭에서 왕대난다.’는 두 속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앞의 속담은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매우 나쁜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업적을 이루거나 매우 높은 지위에 올라 성공하는 경우를 말하고, 뒤의 속담은 둘레의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큰일을 해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뒤의 속담의 주인공이 앞의 속담 주인공보다 덜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야. 어떠한 조건이든 나름대로 모두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었기에 둘다 존경받아야 하는 거야. 100% 행운으로 성공한 경우는 이 속담에 해당하지 않거든.

뒤의 속담은 훌륭한 집안에서 훌륭한 후손이 나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거야. 집안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위인이 되었을 테니 말이야.

우리가 11세조 벽절공(휘 淸·청) 할아버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뜨릴 수 없는 것이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도곡공(道谷公) 할아버지, 아들인 백술공(伯述公)과, 옥과훈도공(玉果訓導公) 할아버지 이야기야.

도곡공(휘 鶴齡·학령, 1511~1596) 할아버지는 일찍이 글을 읽어서 전국한시백일장에서 장원을 하는 등 문장이 매우 뛰어나셨대. 또 성격도 올곧아서 조선 명종 임금 때에 종부사주부(宗簿寺主簿)의 벼슬을 지내셨어. 이 벼슬은 조선시대 왕실의 족보를 편찬하면서 왕실의 잘잘못을 밝히는 임무를 가진 종6품의 벼슬이었는데, 모두가 우리 도곡공 할아버지가 적임자라고 추천을 해서 취임하게 되셨단다.

도곡공 할아버지의 자(字)는 연수(延壽)이고, 호(號)는 도곡(道谷)인데, 무엇보다도 큰 업적은 아들과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내었다는 점이야. 도곡공 할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많은 공을 세우고 울산까지 달려가 도산전투(島山戰鬪)에서 아깝게 목숨을 잃은 벽절공 청(淸) 할아버지이지거든.

맏손자인 백술공(휘 應洛·응락, 1578~1635) 할아버지는 아버지 청 할아버지와 함께 정유재란의 여러 전투에 참가해서 공을 거두셨고, 둘째 손자인 옥과훈도공(휘 應濂·응렴, 1582~1662)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집에 남아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셨지. 옥과훈도공 할아버지는 나중에 덕천마을에 요동재사(堯洞齋舍)를 지어 이곳에서 학문도 닦고 마을 청년들도 가르치셨단다.

이렇게 충효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10세조 도곡공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어.

백술공 할아버지가 아버지 벽절공 할아버지와 함께 울산 도산전투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야.

왜군이 개미떼처럼 새카맣게 공격해오고 있었지.

“아버지, 잠시 몸을 피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다. 지금 물러선들 사방에 적이 다 퍼져 있으니 어디에 가서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싸워서 죽더라도 우리의 기개를 보여주어야 한다.”

벽절공 할아버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



악은공 칠방공과 가첩에 나타난 10세조 학령 할아버지, 11세조 청 할아버지, 12세조 응렴 할아버지.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백술공 할아버지는 있는 힘을 다해 적을 막았지만 아버지인 벽절공 할아버지는 끝내 쓰러지고 마셨어.

“아, 아버지!”

백술공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부짖으셨어.

그러나 한번 눈을 감은 아버지는 두 번 다시 눈을 뜨지 못하셨지.

백술공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에 맡아 짊어지고 덕천마을로 향하셨어. 교통이 불편했던 당시에 울산에서 덕천까지 걸어온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지.

밥을 얻어 먹어가며 겨우겨우 덕천으로 돌아 오셨어.

벽절공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 옥과훈도공 할아버지도 아버지와 함께 전투에 나가려 하였으나 연세 많으신 할머니와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집을 지키고 있었어.

형이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짊신을 여러 켤레 꿰어차고 밤낮 없이 내달려 형을 마중 나가셨지. 중간에서 마주친 형제는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셨어.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는 함께 돌아와 장례를 치르셨어. 묘소는 구송정 옆 아버지가 태어나셨던 동네 뒷산으로 모셨어.

이 죽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였단다.

뒤에 응락 할아버지는 장사랑훈도(將仕郎訓導) 벼슬을 받으셨고, 응렴 할아버지는 옥과훈도(玉果訓導)의 벼슬을 받으셨어.

그래, 이처럼 우리 선조들은 훌륭하셨어. 우리는 이러한 명문(名門)의 후손인 만큼 존경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거야.



12세조 옥과훈도공 응렴 할아버지가 덕천 마을에 지은 요동재사, 이곳에서 학문도 닦고 후학도 가르쳤다.

청송심문 13정승 열전(11) 청송부원군 공숙공 영의정 심희(沈澮, 1418~1493)

나라 걱정을 집 걱정하듯 다섯 명의 국왕을 섬기다

부친(안효공 심온)의 화를 거울삼아 한평생 충성심과 겸손으로 국가에 헌신



심재석
문학박사

1. 공숙공은 이런 분이다.

공숙공(恭肅公) 심희 할아버지는 부친인 안효공이 화를 입은 후, 20살 연상의 누이인 소헌왕후의 배려로 선산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죽고모인 천안 전씨와 강거민공 부부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성장하여 영의정까지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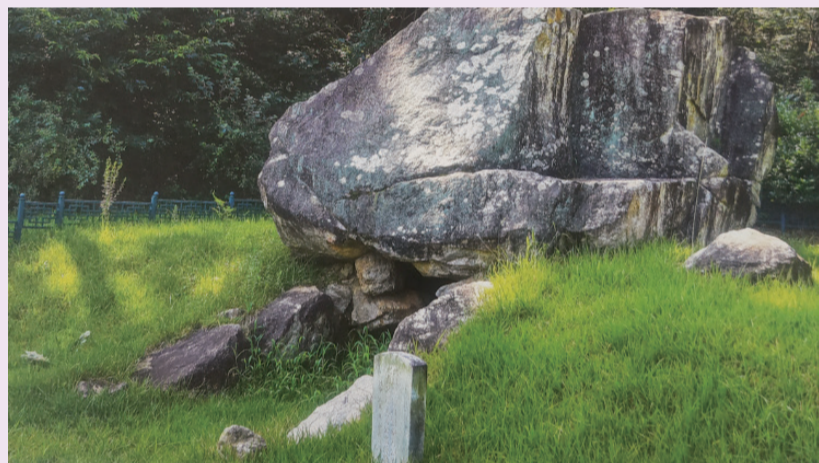
공의 시호 공숙(恭肅)은 부친 안효공의 참화를 교훈 삼아 공손하고(恭) 정갈한(肅) 인품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공은 세조로 추정되는 국왕에게 “요순시절을 만난 듯 뿌듯하다”면서, “강녕하시고 또 강녕하시라”고 읊었다(응제시). 공의 일생은 “나라 걱정을 집 걱정하듯 한” 삶이었다(신도비).

① 험한 처지를 극복하고 재상에 올랐다. 부친의 피화와 이산가족의 아픔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도 학업에 전념했다. 안효공이 사후 33년 만에 복권되자, 문종은 공숙공을 둔녕부주부에 제수했고, 34세에 처음으로 관직에 나아갔다. 세조는 공숙공(희)과 정이공(결)을 늘상 ‘숙부’라고 부르며 극진히 우대했다. 공은 성

④ 사후에 화를 입었다. 성종대에 연산군의 생모인 윤 씨의 ‘왕비책봉주문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얼마 후 성종이 윤 씨를 죽이려고 할 때, 공숙공은 윤 씨를 별궁에 가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성종의 결심이 굳은 것을 보고 사사(賜死)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갑자사화(1504) 때 부관참시를 당했다. 훗날 영의정을 지낸 심환지 공은 “공숙공의 묘가 (파주 우랑동에 있지 않고) 여기 회곡(灰谷)에 있는지 알게 하려고 따로 비석을 세운다”(천장사적비)고 썼다.

⑤ 정치적 업적으로는 강상(綱常)의 윤리를 중시하고, 여진족과 왜인 등의 침략과 교섭에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세조 때 폐지한 유향소(留鄉所)를 다시 세우자고 건의하였고, 불교, 도교, 풍수지리 등을 엄격히 배격하였다(그러나 내심으로는 불교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양모가 별세하자 3년 시묘살이로 국왕을 감



시묘암(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공숙공이 자신을 길러준 양모의 은혜에 보답키 위해 시묘살이를 한 곳이다.

동케 하다

공은 1474년(성종 5) 양모 전씨가 별세하자 선산에 내려가 3년간 시묘(侍墓)살이를 했다. 주변이 만류했으나 “양육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자 국왕도 감동했다고 한다.

공은 다섯 왕(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을 섬긴 중신으로, 오랜 세월 조정에 있으면서 성실과 근신으로 공무를 처리했다. 공은 “평상시에는 비록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날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꿇어앉아 있었다. 자질(子姪)도 반드시 의관을 정제한 다음 맞이하였고 사대부는 예로써 응접하였으므로, 청탁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신도비).

3. 공숙공의 후손들

① 공숙공은 아들 셋을 두었다. 장남 인(참의공)의 아들이 세종의 서6남 수춘군의 사위이며, 차남 한(이경공)은 평안도 절도사로 재임 중 어머니를 간호하다 병을 얻어 작고한 효자로서 부조(不祧)의 은전을 받았다. 3남(관관공) 원은 이시애난 때 순절했다.

② 공의 손자인 사인공(심순문)은 연산군에



공숙공천장사적비(恭肅沈公遷葬事蹟碑). 갑자사화 때 파주 우랑골에 있던 공의 묘소는 화를 입었다. 후손들이 회곡에 의리(衣履)만으로 새로 묘소를 조성하면서 세운 비석이다. 정조~순조 때의 정승 심환지(沈煥之)가 짓고, 심이지(沈頤之)가 썼다(1792년 건립).

왕후는 명종 사후 선조를 왕으로 낙점하고 수렴청정을 함으로써 한때 정국을 장악하였다. 그 이후 단의왕후를 비롯해 여러 재상과 고관들이 나와 청송심문은 명문가로 발돋움했다.

③ 공의 현손 심종명(沈宗明)은 임란 중 임진강 전투에서 순절하여, 파주 우랑골 선산묘하에 그를 위한 정려문이 세워졌다.

④ 5대손 심우신(沈友信) 장군도 임란 시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하였다. 5대손 일송 심희수(沈喜壽)는 당대 제일의 문인으로 좌의정과 대제학을 역임하였고, 임란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4. 공숙공 아우 심장기(沈長己), 파주 용미리 마애석불 조성 때 크게 시주하다

경기 파주 용미리 마애석불은 한국에서 가장 큰 바위 부처이다(17m). 최근 마애불 조성 명문에 ‘대시주 상호군 심장기(大施主上護軍沈長己)’라고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심씨 문중에 현존하는 최초의 족보인 기축보(1649)에는 심장기 공의 이름만 있을 뿐 아무 기록이 없다. 경진보(2002)에는 벼슬이 사알(司諫·정6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위직인 상호군(정3품)까지 올랐음을 이 명문을 통해 알게 됐다. 심장기 선조는 성종 때 세조와 정희 왕후를 위해 ‘파주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을 조성할 때, 왕실과 청송 심문의 번창을 기원하며 대시주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파주 용미리 마애이불입상’과 명문(銘文). 세조대왕 부부상으로, 소헌왕후의 아우이자 세조의 외삼촌인 ‘심장기’ 공이 이 석불 조성에 거금을 희사하였다 (사진 심재석 2020.11.21).

(공숙공 주요 연보)

서기	경력
1418(1세)	출생, 안효공 피화로 선산의 강거민공이 양육
1457(40세)	공조판서
1461(44세)	형조판서
1463(46세)	경기도관찰사
1466(49세)	좌의정
1467(50세)	영의정
1476(59세)	좌의정
1479(62세)	영사와 청송부원군으로 정치 참여 계속
1486(69세)	사직서 제출했으나 반려
1491(74세)	궐장 하사
1493(76세)	서거

실하고 근면하게 소임을 다함으로써 타인의 칭송을 받으며 공조판서, 형조판서, 경기도관찰사, 좌의정, 영의정으로 승진을 거듭했다. 예종 초에는 ‘남이의 옥사’를 처리하여 공신으로서 청송부원군에 봉군되었고, 성종대에는 좌리공신이 되었다.

② 세조의 율타리 역할을 하였다. 이시애 난(1467) 당시 공숙공은 영의정이었고, 3남인 관관공(심원)은 점마별감(點馬別監)으로 함흥에서 순절했다. 공은 슬픔을 억제하고 모든 관료를 대동해 이시애 난의 평정을 축하하는 전문을 올렸다(세조실록/13.8.19). 정이공(심결)과 청성위(심안의)를 비롯한 당대 심문이 세조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공로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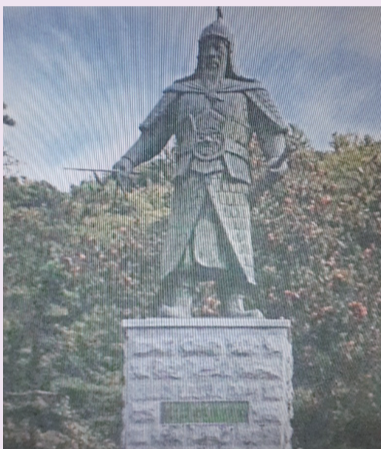
③ 궐장을 하사받았다. 공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사에 매진하여 성종의 지극한 신임을 받았으며 궐장(几杖·안석과 지팡이)을 하사받았다. 국왕 앞에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니, 신하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었다.

종회탐방 : 선무공신종회를 찾아서

심우신 의병장 사적지 연내 장성군 향토문화재 등록 추진



심재규 선무공신종회 회장



선무공신 심우신 의병장 동상 (상무대)



왼쪽부터 심재열 전북총회 총무, 심수영 전북총회 회장,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관, 심재규 선무공신종회 회장, 심창선 선무공신 종손

가재(家財)를 모두 팔아 처가(妻家)인 전남 영광군 삼서면(현 장성군 상무대)에서 의병 수천 명을 모집했다. 한 달 동안 훈련 후 의병부대(표의·彪義)를 이끌고 충북 청주와 황간지방 전투에 참전해 왜적 수백 명을 사살했다. 그해 12월에는 수원의 독성산성에 들어가 한양을 점거 중인 왜적을 상대로 유격전을 벌여 대승을 거뒀다.

1593년 4월 왜적이 한양에서 퇴각하자 조정에서는 그 공을 높이 치하해 남양도호부사(南陽都護府副使)⁵⁾ 겸 기보진무사(畿輔鎭撫使)⁶⁾를 제수(除授)⁷⁾했다. 그러나 이를 사양하고 왜적이 진주성을 공략할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진주로 내려갔다.

10만의 왜적이 진주성을 공격을 해오면서 수세에 몰리자 의병대원들과 '같이 죽어 원구가 되어서라도 적을 섬멸하자'고 결의한 후 '나는 무인이니 헛되이 죽을 수 없다'면서 다시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결사항전했다. 그러나 적이 뒤에서 밀려오자 결국 북향사배(北向四拜)하고 남강에 투신해 순절하였다. 향년 50세, 1593년 6월 29일이었다. 사후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표의사(彪義祠·옛 영광군 長川祠)에 위패와 영정 등을 모셨다. 임란이 끝나고 100여 년이 흐른 1700년대에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추증되었다.⁸⁾

선무공신¹⁾ 심우신(沈友信·11세조) 할아버지는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군사연구 제121집>에 '의병장 심우신을 통해 본 임진왜란의 의병활동'²⁾이라는 글이 있을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하고, 군사전략이 뛰어났다. 육군 상무대 경내에 선무공신 동상이 있다.

이처럼 빛나는 선무공신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심재규 회장, 심재영 총무 등 집행부와 이사회, 선무공신 종손 심창선, 직계 후손인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관 등이 선무공신 재실 등 사적지를 향토문화재로 등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 선무공신 생애

선무공신은 1544년(중종 39년) 음력 8월 21일, 청송 심씨 입향조 세거지인 김포의 통진 학당골에서 곡산군수를 지낸 곡산공(후 沈鏞·심수)과 어머니 죽산 박씨(竹山朴氏)의 3남으로 태어났으며, 김포시 대곶면 대능리 8번지 일원의 비석능산 자락에 선무공신 집안의 세장지가 있다.

선무공신은 1577년(선조 10)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宣傳官)³⁾과 웅진현령(龜津縣令) 등을 거쳐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⁴⁾이 되었다. 1591년 모친상을 당해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에 있던 중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상복을 벗어 던지고



전남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373번지 부귀마을의 표의사 전경

2. 역사적 평가

첫째, 우국충정의 명장이었다. 당시 명종의 왕비인 인순왕후와 서인의 실력자 심의경과는 재종간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출세보다 의병장의 길을 택했다. 그의 의병을 교육하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이미 나라를 위하여 한 번 죽기로 맹세한 몸이다. 이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 순국일념으로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산골짜기에 엎드려서 내 한 몸 편하자고 처자나 보호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 이 한 몸 나라에 바쳐 나라를 세세히 보존해 나가자."고 했다. 모두가 숙연했다고 한다.⁹⁾

둘째, 전우애와 리더십을 실천한 덕장이었다. 항상 의병들과 동고동락했고, 활의 명수로서 리더십을 보였기에 모두가 복종했다. 특히 처가에서 받은 재산을 남김없이 팔아서 의병양성에 썼다. 친척들이 '후손에게 물려줄 전답은 다소 남겨 두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만류했지만 거절했다. "재물은 뜬 구름과 같은 것인데, 망신순국(忘身殉國)의 거사에 임한 내가 어찌 사사로운 걱정을 하겠는가?"라며 "재물을 자손에게 넘겨주는 것보다 차라리 모두 처분해 후세에 충신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큰아들 심허(沈翹)도 함께 출병했다. 갓 스물살로 집안일을 돌보라고 했으나 여러 날 식음을 전폐하며 종군하기를 간청하자 승낙했다. 휘하의 장수와 의병들도 모두 감복하여 사기가 충천했다.¹⁰⁾

셋째, '범과 같은 의병부대'를 꿈꾼 맹장이었다. 그래서 부대기(部隊旗)가 표범을 뜻하는 '표의(彪義)'였다. 직속 부장 임두춘은 처남이자 전우로서 생사를 함께 했다.

넷째, 정보수집에 능한 지장이었다. 표의사지는 '공은 기발한 전략을 써서 적의 선봉을 꺾으시니 적이 겁내어 다시는 감히 덤비지 못하였다.'고 적고 있다.¹¹⁾ 첫 출정할 때 황간지역에 왜군이 주둔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육로 대신 영광 법성포에서 금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뱃길을 이용했다. 이때 지리에 밝은 몇 명을 붙여서 적지를 살핀 다음, 야간에 불화살로 적진을 불태우고 퇴로에서 도주하는 적을 섬멸하는 지략을 발휘했다.

3. 향토문화재 등록

육군 상무대는 선무공신의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오늘날 국군장병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처가인 전남 장성군 삼서면 지방은 선무공신이 의병 활동을 벌인 본거지였고, 그의 묘소도 이곳에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선무공신의 공덕을 사모해 장성군에 사당(표의사)을 세워 그의 행적을 숭모하고 있다. 선무공신의 사적지를 장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다.

1) 1604년(선조 37) 조정에서 심우신 의병장께 내려 준 교서는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이다.

2) 중령 김광선('월간 아름다운 사람들' 상임편집위원·시인).

3) 조선시대 때 왕의 옆에서 왕을 호위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선전관청에서 종사하는 사람.

4) 군기감(軍器監)이라고도 하며, 군사(軍事)에 필요한 병기를 제조하고 무기를 조달하던 관청. 군기시(軍器寺)의 첨정(僉正)은 종4품(현재의 국방부 4급 공무원 해당)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5) 지금의 수원지방에 설치한 도호부로서 당시 조선에는 75개의 도호부가 있었다.

6) 경기지방의 일정 지역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무영(鎭撫營)의 벼슬로 오위진무소(五衛鎭撫所)에 속했다.

7) 추천을 받지 않고 임금이 직접 관리를 임명하는 일.

8) 9) 10) 11) 심상득, 「彪義祠誌」(청송심씨 선무공파종회, 삼한정판사, 1992.)

일가기업탐방... 경북 안동 대덕산업

친환경 어초블록 개발의 선구자...선비문화 보급에도 앞장



기업경영과 선비문화 전파, 종사일 등으로 바쁜 심재덕 회장

대덕산업은 심재덕 회장이 경북 안동에서 경영하는 친환경 블록 개발과 제조 전문기업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관련 특허를 수없이 취득한 독보적 기업으로, 이미 2011년 ‘안동기업인 대상(大賞)’을 수상한 바 있다. 대덕기업의 전신은 1973년 설립한 동아전기회사. 대구경북지방에서 건설·토목·전기 공사 등을 해오며 강소기업으로 도약했다. 이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친환경 블록 제품(호안, 사방, 바닥보호 등)을 만들기 위해 2001년 제조업으로 전환했다. 당시 남후농공단지에 입주해 친환경 식생 블록 자동화공장을 준공했고, 이후 친환경 수로관 공장을 준공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지금에 이르렀다. 대덕산업은 현재 3개의 공장(안동, 봉화)과 2개의 연수원(용두산, 동해), 그리고 대덕육영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덕산업은 최근 바닷속에서 쓰는 친환경 어초블록도 개발해 해양환경 보존에 한 획을 그은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초블록은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덕산업의 제품은 유향 성분을 첨가해 바닷속 생물의 정착과 생장을 촉진하고, 해충과 적조현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대덕산업은 요즘도 각계 전문가와 교수진의 자문을 받아 더 좋은 어초블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비전은 합자회사인 대덕산업 부설 친환경 생태 개발실험연수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 연수원에서는 친환경 어초블록을 비롯해 대덕산업이 만든 다양한 친환경 블록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재덕 회장은 기업경영만이 아니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안동지방에서 ‘선비문화’를 지키고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기에 안동 청년유도회와 인연을 맺은 이후 성균관 안동향교의 장의(掌議)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선비문화’의 보존과 전파에 나서게 됐다. 그런 노력의 결정체가 사재를 털어 만든 ‘안동선비문화박물관’이다(2014년 11월 24일 개관). 이 박물관의 설립목적은 “선비정신을 되살려 인성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신문화를 표상하는 영남의 선비문화 유산이 고

유한 전통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비문화 보급과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유교 경전 암송’, ‘탁본체험’, ‘선비체험’, ‘전통 공예 체험’, ‘국악공연’, ‘근대사 기록유물 특별기획전’ 등의 이벤트도 운영하고 있다.

그런 헌신 때문에 재덕 회장은 (사)유교문화보존회 초대 이사장, 안동 청년유도회 회장, 박약회(博約會) 안동지회장, 성균관 안동향교 장의, 도산서원 재유사(齋有司),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로 일했거나 일하고 있다. 또 국제라이온스협회 경북지구 제24대 총재 등을 지내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재덕 회장은 대중회 부회장 겸 안동총회 회장으로 일하는 등 종사에도 열심이다. 일찍이 청송 보광산 시조님 문림랑공(휘 沈洪孚·심홍부) 묘소 진입로 정비사업, 4세조 정안공(휘 沈德符·심덕부) 재각 현판글씨 기부, <2019년 한마음대회> 등 대중회 각종 사업 기부 협찬 등 40여 년 동안 한마음으로 종사일을 보고 있다. 본시동근 불망청송(本是同根 不忘青松)을 가슴에 새기고 최근에는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소재 소헌공원 경내에 세종대왕·소헌왕후 상징물을 건립하기 위해 만든 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좌측으로부터 심정미 대덕산업 기획실장, 심남규 중보편집위원,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겸 대외협력실장, 심재덕 대덕산업 회장, 심초철 수원대 교수, 심규선 중보편집장(前 동아일보 대기자), 심규섭 오산사북시정공중회 총무



대덕산업 제1공장(안동)



제2공장(봉화)



용두산 대덕연수원



동해 대덕연수원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문화, 바둑, 스포츠, 군(軍)...각계 각층서 심문의 위상 높여

심상국 대종회 부회장, '한국예술문화명인'에



심상국 대종회 부회장 겸 봉익대부공중회 회장이 2020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제9회 한국예술문화명인> 선발심의에 최종 합격했다. 심 회장은 생태 사진 전문가이다.

심동현 육군 준장(한미연합사), 美 공로훈장



심동현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차장(육군 준장)이 2020년 12월 21일 미국 정부로부터 공로훈장(The Legion of Merit)을 받았다. 이 훈장은 미

국 정부가 외국군에게 수여하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심 차장은 한미동맹 강화와 연합 정책·기획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심재기 시인, '제8회 전주문학상' 본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는 2020년 12월 1일 '제8회 전주문학상' 본상 수상자로 심재기 시인을 선정했다. 심 시인은 한국 아동문학연구회 전북지회장, 한국예총 전주지회장, 전주문인협회

회장을 맡아 지역 문학 발전에 봉사해왔다. 저서로는 동시집 <꽃씨> <초록손수건> <엄마는 육군상병>, 시집 <주머니 속에 잠든 세월>, <꿈> 등이 있다.

심학섭 진행위터 대표, 생수 1000박스 선물



심학섭 진행위터 대표(청수회 회장)이 연말 연시를 맞아 지파총회, 청심회, 청수회 회원들에게 자사가 생산한 고급 약알칼리수 PH7.4 생수 1025박스(500ml 20개들이)를 선물했다.



연말 연초 인사발령



심진선 소장 육군교육사령부 (2020년12월8일)



심이섭 한국가스안전공사경남본부장 (2021년1월1일)



심민철 청와대비서실 (2020년11월24일)



심재학 한국농어촌공사동진지사장 (2021년1월11일)



심상국 빅트레스지사장 (2020년11월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0년 12월 20일자)
◇부서장 전보 ▲정보관리실장 심민수
<한국전력>(2020년 12월 20일자)
◇본사 처(실)장 ▲기술품질처장 심은보
<미래에셋대우>(2020년 12월 21일자)
◇신임 ▲투자센터목동WM1팀장 심현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0년 12월 22일자)
◇승진 3급(부이사관) ▲중앙선관위

선거기록보존소장 심현화 <KB증권>(2020년 12월 29일자)
◇승진 ▲ECM본부장(전무) 심재승 <DB손해보험>(2020년 12월 29일자)
◇임원승진 <상무> ▲인사팀 심재철 <대구 수성구>(1월 1일자)
◇전보 ▲행복나눔과 심보미 <대전 동구>(1월 1일자)
◇5급 전보 ▲안전총괄과장 심상간 <부산광역시>(1월 1일자)
◇승진 전보 ▲건설본부장 심성태 <경기도 부천시>(1월 1일자)
◇전보 ▲오정동 심우준, 복지정책과장 심재성 <경기도 의정부시>(1월 1일자)
◇5급 전보 ▲도시철도과장 심진주 <경기도 양평군>(1월 1일자)
◇4급 승진·전보 ▲경제산업국장 심준보 <강원도>(1월 1일자)
◇4·5급 전보 ▲삼척시 부시장 심원섭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장 심재환 <강원도 춘천시>(1월 1일자)
◇국장 전보 ▲교통환경국장 심의현 <강원도 삼척시>(1월 1일자)
◇전보 ▲복지정책과장 심혜영 ▲사회복지과 심경숙 <강원도 태백시>(1월 1일자)
◇전보 ▲소통감사담당관실 심재순 <강원도 원주시>(1월 1일자)
◇승진·전보 ▲의회사무국 심인숙 ▲무실동 심혜련 ▲균형개발과 심상혁 ▲감사관실 심봉석 ▲환경과 심빛나 ▲회계과 심상철 ▲문막읍 심재욱 <충북 괴산군>(1월 1일자)

◇전보 ▲주민복지과 심재봉, 심창용 ▲칠성면 심건용 <충청남도청>(1월 1일자)
◇승진전보 ▲안전정책과 심민성 ▲인사과(계통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파견) 심웅섭 ▲의회사무처 심혜진 ▲지방자치인재개발연구원 심완보 <충남 당진시>(1월 1일자)
◇5급 승진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 심화섭 <충남 홍성군>(1월 1일자)
◇전보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장 심선자 ▲안전관리과 심은혜 ▲보건소 심진주 ▲안전관리과 심재욱 ▲농업정책과 심재윤 <충남 예산군>(1월 1일자)
◇전보 ▲대술면 심흥용 ▲봉산면 심준용 <경남 창원시>(1월 1일자)
◇4급 전보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 <한국무역협회>(1월 1일자)
◇전보 ▲중국실장 심윤섭 <한국조폐공사>(1월 1일자)
◇3급 전보 ▲생산처 발급부장 심종오 <한국농어촌공사>(1월 1일자)
◇본사 부장 ▲그린정책부장 심길웅 <한국농촌경제연구원>(1월 1일자)
◇전보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심재현 <농민신문사>(1월 1일자)
◇편집국 ▲제주주재 기자 심재웅 <한국전기안전공사>(1월 1일자)
◇2급(감) 전보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중부지사장 심재원

<청주대학교>(1월 1일자)
▲국제교류처장 심재승 <성균관대학교>(1월 1일자)
▲한국사서교육원장 심원식 <한국토지주택공사>(1월 1일자)
◇부서장 ▲공정계약단장 심상운 <한국전력공사>(1월 1일자)
◇경영혁신처 ▲산업안전실장 심재강 <경기본부 ▲전력관리처장 심정운 <강원농협>(1월 1일자)
◇M급 ▲영월 농촌지원단장 심규원 <NH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1월 1일자)
◇3급 전보 ▲심재(고성군 부지부장) <강원농협>(1월 1일자)
◇3급 승진전보 ▲심규원 영월 농촌 지원단장 <포스코ICT>(1월 4일자)
◇임원 승진 및 신규 선임 ▲스마트 EIC사업실장 심민석 <충남 천안시>(1월 5일자)
◇4.5급 승진 ▲맑은물사업소장 심상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심상욱 <5급 전보 ▲정보통신과장 심해용 <울산광역시>(1월 6일자)
◇5급 전보 ▲감사관 심은덕 ▲울산 경제자유구역청 심정은 <전북 고창군>(1월 6일자)
◇전보 ▲산림공원과 심성화 <서울특별시>(1월 8일자)
◇4급 전보 ▲시설계획과장 심재욱 <전남 여수시>(1월 8일자)
◇5급 승진전보 ▲시전동장 심재욱 <전북 익산시>(1월 8일자)
◇승진 ▲하수도과 심정현 <11면으로 이어집니다>

지파총회 소식 - 이런 일 저런 일

대중회, 심문 달력 7000부 제작 전국 배포...곳곳서 호평

대중회는 청송 심문의 역사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처음으로 '2021년 청송심문 달력' 7000부를 제작해 국내외 일가분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대중회는 전국 지파총회와 일가분들의 협조를 얻어 달력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제작비도 보전하고 장학금도 확보했습니다. 이 달력을 받은 많은 일가들은 "청송 심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대중회는 종보 제작에 도움을 준 지파총회와 일가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2022년 달력은 더욱 풍성하고 알찬 달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부윤공파선산총회 심문달력 배부현장 (2020년 12월 21일 총회사무실)

청수회, 울산위원장과 전북위원장 선출



심명보 울산위원장 선출(2020년 10월 30일)



심관섭 전북위원장 선출(2020년 11월 21일)

화재 입은 심성섭 일가에게 도움의 손길



화재 피해 심성섭 부부(왼쪽 두분)를 위로 방문한 심향보 전북총회총무.

전북 임실군 이인리에 사시는 심성섭(재자 향렬·87세) 일가께서 1월 2일 전기누전으로 인해 집이 전소하는 불행한 일을 겪으셨다. 이에 전북청수회는 관섭 회장, 재열 고문, 한철 부회장께서 위로 방문을 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또 전북총회(회장 심수영)에서도 의연물품과 족보를 전달했다. 성섭 일가께서는 남다른 애정으로 각종 총회행사에 참석해 왔으며, 이번 화재로 소중한 간직해 온 족보를 잃어 상심이 컸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심의조 전 합천 군수 별세...두산정 문화재자료 등록에도 기여

경남 합천군은 1월 17일 오전 8시 합천군청 광장에서 심의조 전 합천군수의 영결식을 가졌다. 심 전 군수는 1월 1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심 전 군수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민선 제3대(36대), 제4대(37대) 군수를 역

◀ 고 심의조 전 합천군수

임하며, 교육 불모지였던 합천군을 신흥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고, 농업과 관광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인은 심문의 2세조 합문지후공(휘 沈淵) 할아버지 재각인 두산정(합천군 삼가면 두모리 소재)을 2005년 7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제375호)로 등록하는데 기여하고 중수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 <서울지방국세청>(1월 11일자)
- ◇ 행정사무관 전보 ▲법인세과 심은진(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1월 11일자)
- ◇ 행정사무관 전보 ▲조사1국 조사1과 심희준(경기광주)
- <광주지방국세청>(1월 11일자)
- ◇ 행정사무관 전보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심종보(순천 소득)
- <충북 제천시>(1월 11일자)
- ◇ 전보 ▲수도사업소 수도시설팀장 심명구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2팀장 심현권
- <전북 전주시>(1월 11일자)
- ◇ 전보 ▲생태도시계획과 심규언
- <전북 장수군>(1월 11일자)
- ◇ 전보 ▲일자리경제과 심영우
- <전남 곡성군>(1월 11일자)
- ◇ 전보 ▲재무과 심세희 ▲주민복지과 심유라
- <한국가스안전공사>(1월 11일자)

- ◇ 2급 전보 ▲경기서부지사장 심재호
- ◇ 3급 전보 ▲화학물질안전처 호남권검사진단부장 심규훈
- <하나은행>(1월 12일자)
- ◇ RM ▲익산공단 심석진
- <울산광역시 울주군>(1월 14일자)
- ◇ 전보 ▲청량읍 심지윤 ▲회계정보과 심현정
- <서울지방국세청>(1월 15일자)
- ▲서울지방국세청 직속 감사관 심재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심정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심수한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심규연 ▲남대문세무서 조사과 심지숙 ▲용산세무서 조사과 심지은 ▲서대문세무서 재산법인세과 심준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 심수연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심연수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심현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 심윤보 ▲영등포세무서

- 조사과 심재희 ▲구로세무서 체납징세과 심선미 ▲동작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심민정 ▲반포세무서 소득세과 심효진 ▲반포세무서 법인세과 심수빈 ▲동대문세무서 체납징세과 심연택 ▲도봉세무서 소득세과 심지섭 ▲송파세무서 법인세과 심현정 ▲잠실세무서 법인세과 심예진 ▲잠실세무서 조사과 심윤정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 심현희 ▲노원세무서 조사과 심주호
- <중부지방국세청>(1월 15일자)
- ▲평택세무서 소득세과 심완수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 심윤미 ▲평택세무서 재산세과 심주영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심세별 ▲분당세무서 체납징세과 심용훈 ▲경기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규민
- <강원도>(1월 15일자)
- ◇ 전보 ▲건축과 심천섭 ▲정보산

- 업과 심규태
- <강원지방경찰청>(1월 15일자)
- ◇ 경정 승진 ▲교통과 심기원
- <경남 양산시>(1월 18일자)
- ◇ 5급 전보 ▲수질관리과장 심주석
- <전북도청>(1월 25일자)
- ◇ 팀장전보 ▲국제협력과 심철숙
- <서울 도봉구>(1월 1일자)
- ◇ 승진전보 ▲심재열(방학제3동 통합복지팀장)
- <충남 논산시>(1월 21일자)
- ◇ 전보 ▲주민생활지원과 심윤무
- <전라남도>(1월 25일자)
- ◇ 승진 ▲동부지역본부 심정식
- ◇ 전보 ▲한국에너지공단설립지원단 심재홍 ▲관광과 심영희
- <경찰청>(1월 20일자)
- ▲경찰청 대테러과장 심한철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심현규 ▲충남 공주경찰서장 심은석 ▲경남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 심태환

공지사항

2021년도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 ◆ 선발대상 고등학교1년생, 대학(원)생, 특기생 및 일반인
- ◆ 지원자격 품행이 올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재능이 출중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잠재성이 유망한 자
 - 고등학교1년생 : 중, 고등학교 성적우수자
 - 대학(원)생 : 전체 학점 3.8/4.5점 이상 또는 관련 전공분야의 표창 등 실적우수자 (입학성적 우수자 포함)
 - 특기생 및 일반인 : 국내,외 수상실적 우수자 또는 유망주
- ◆ 선발인원 인원 : 10명 내외
- ◆ 선발방법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발
- ◆ 수혜금액 3백만원~5백만원 (고등학교1년생은 고2, 고3 총2회 장학금 지급)
- ◆ 지원서류
 1. 장학금 신청서
 2. 추천서
 3.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고1년생은 중학교 성적도 제출)
 4. 장래 목표 도전 계획서
 5. 서약서
 6. 학교재학증명서
 7. 가족관계 증명서
 8.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9. 기타 증빙서류(수상실적, 전문능력증명서 등)
- ◆ 제출처 (재) 청심장학회 사무국(02-2267-7857) 또는 청송심씨대중회 홈페이지(www.csshim.or.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 제출기간 2021년 2월 15일~ 2월 26일까지
- ◆ 면접일자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별도 통보)
- ◆ 장학금 수여 2021년 4월 중

2021. 01. 04.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이사장 심 대 평

장학금기부계좌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인터넷족보 증보완료 안내

지난해 5월 1일~10월 31일까지 접수한 인터넷 족보수단은 다음달 2월 1일부터 증보된 족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수 : 총 2,328명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12. 15~12. 31
- 이의신청건의 수정기간 : 2021. 1. 11~ 1. 31

*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수단 중 이의신청기간에 수정 요청한 것에 한함.

대중회 증보 협찬 및 임원회비 계좌안내

대중회증보는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정보공유, 사적지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격월로 발행합니다. 구독 희망 일가분께서는 02) 2267-7857, 2267-9339 또는 각종 SNS 등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보 잔조금 · 임원회비 송금계좌 ☞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중회>

각종 잔조현황(2020. 11. 16 ~ 2021. 1. 15)

■ 각 잔조 50만 원 이상 잔조 시 2회 사진개제

								
심상식 함흥공중회 회장	심재식 (주)우리 대표이사	심덕식 전) 국가보훈처 차관	심광부 (주)천연기업 대표이사	심충식 주) 선광 대표이사	심국향 제주 두머니물 대표	심진섭 주) 골든포우 대표이사	심성식 주) 하늘천 대표이사	심춘석 주) 해경건설 대표이사
장학금 300만원 2020년10월	장학금 410만원 2020년7월, 10월	장학금 100만원 2020년10월	증보잔조 200만원 2020년10월	장학금 200만원 2020년10월	장학금 200만원 2020년10월	장학금 200만원 2020년11월	장학금 200만원 2020년11월	장학금 100만원 2020년11월
								
심상경 (주)협동 회장	심재근 대륙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오산시정공파종회 회장 심익섭	심양섭 예술화원 대표	심상조 (주)경우크린텍 회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심현근 대전충남세종지구중회장	심대민 전파라다이스산업공동대표	심진호 광주부유공파선산중회 회장
장학잔조 300만원 2020년4월, 10월	장학잔조 100만원 2020년11월	증보·장학잔조 400만원 2020년2월, 11월	장학잔조 100만원 2020년11월	장학잔조 500만원 2020년12월	증보 · 장학잔조 150만원 2020년12월	증보 · 달력잔조 50만원 2020년12월	장학잔조 100만원 2021년1월	증보잔조 100만원 2021년1월

증보·달력잔조

100만원	광주부유공파선산중회(회장 진호)	명섭, 천섭, 호웅(면목), 혜성, 재근(방배), 재연, 재춘, 재명(역삼), 우경(곡성), 은석, 의보(상주), 보경(한국화가), 규태(인천), 용권(경남), 희권(대령), 역수(청주), 병익, 지영
50만원	현근(대전), 심민(임실)	재율(부산)
40만원	온양사복시정공파	4만원
30만원	광산중회, 영희(청송), 능광(청송), 진천월촌중회, 청주중회	3만원
20만원	재영(부산), 우창(여주중회), 상열(내자시판공중회), 청송골프회(심양섭)	2만원
15만원	재득(서울), 덕보(포항)	1만원
13만원	재윤	
10만원	상경(신천공파중회), 상조(대유토건), 상위, 상학(서울), 상천, 언촌, 광열(대구), 재성(진주), 재섭, 재순, 재일, 재창, 우창, 명규, 대용, 팽길, 인향, 정민, 차숙	
6만원	광섭, 의표, 훈(경기)	
5만원	종택(군포), 승섭, 진섭(창원), 학섭(해인), 대섭(익산), 무섭(울진), 주현 외 1,729,070	

장학잔조

500만원	상조(서울)
100만원	양섭(과천), 심민(임실), 문석(대구), 대민(서울)
30만원	진천월촌중회
20만원	차숙(서울)
3만원	창보(서울)
2만원	재희(익산)

임원회비

부회장 회비(20년분)	30만원	능광(청송), 상국(강원), 대섭(전남), 규화(울산)	부회장 회비(21년분)	30만원	능광(청송)
이사회비(20년분)	5만원	길택(청송), 오택(경기), 재택(철원), 종택(경기), 춘택(강원), 상구(서울), 상규(철원), 상백(광주), 상민(철원), 상환(서울), 상학(충북), 상영(충북), 명언(충북), 경섭(경남), 동섭(강원), 익섭(서울), 덕섭(서울), 원섭(인천), 명섭(경남), 대섭(전북), 준섭(광주), 일섭(전남), 은섭(충북), 한섭(경남), 희섭(강원), 창섭(서울), 화섭(경기), 재갑(서울), 재득(서울), 재화(경남), 재욱(충북), 재훈(충북), 재호(경북), 재상(경남), 성식(학동), 의보(충북), 명보(울산), 언보(울산), 영구(울산), 용구(울산), 춘보(서울), 진식(경남), 규선(서울), 규종(경북), 동석(대전), 진호(대구), 광석(경북), 경식(경기), 영식(충남), 영종(충남), 종식(서울), 종식(광주), 동석(대전), 한식(충남), 행근(충남), 충형(대구)			
이사회비(21년분)	5만원	재석(인천), 재구(강원), 상학(서울)			